인턴선교사훈련 소감문\_박지나 자매

합숙으로 2박 3일 동안 진행된 이번 인턴선교사 훈련은 저에게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본적인 해외 선교의 개념부터 선교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총 8명의 인원이 참여하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외선교부 전도사님들과 선교사님들께서 오셔서 강의와 간증을 해주셨는데, 어디에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귀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훈련은 선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선교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나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도 있었고, 제 삶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방향성을 두고 고민하던 시기였기에 이번 훈련은 더욱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훈련은 필그림 하우스에서 진행되었고, 둘째 날 저녁에 혼자 침묵의 기도실에 가서 기도했던 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어느 나라로 가면 좋을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알려달라는 기도를 드리며 복음서를 묵상하던 중 마가복음 4장 40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제가 제시했던 선택지는 두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기도에 대해 배웠습니다. 선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이며, 기도 없이는 선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선교의 도구가 아니라 선교 그 자체이며, 그렇기에 기도 후원자와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 가운데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Already) 승리한 전쟁이지만, 사단은 아직(Not yet)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기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V-day)까지 영적 전쟁은 계속된다는 가르침도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제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맡겨 드림’이며 ‘동행하심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고, 저는 그 승리의 기쁨에 동참하도록 초대받은 자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사역을 하느냐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쁨이 되는 자리로 저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외 선교는 외롭고 힘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나올 만큼 하나님과 온전히 마주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타지에서 현실적인 어려움과 영적 전쟁이 계속되겠지만, 그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배웠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앞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고자 합니다.